

## 학원강의 활용법

합격생이 전하는 수험생활

이름	유선종				
전공 학과(부)	전기전자공학부	수험형태	전업	선택과목	회로이론
학습기간	( 20.2 ~ 21.8 )			시험응시횟수	1회
시험점수	민소 (69)	특허 (56.66)	상표 (56.33)	선택 (69.33)	총점 (182) 평균 (60.66)

### 1. 들어가며

막연히 사기업 취직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을 가지던 중, 우연히 변리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공계 출신이 지식재산권 법을 공부하여, 기술과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점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실제취직 후 업무환경, 서울근무, 수입, 전문성 등 여러 면에서 변리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3학년 재학을 마치고 휴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험공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2. 공부 방법

처음수험공부를 시작할 때 학교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주변 환경에 민감한 편이어서 폐쇄적인 환경이 공부하기 보다 적합하다 느껴 집 앞 1인실 독서실로 옮겼고, 이후 대부분의 공부를 그 곳에서 혼자 하였습니다. 별도로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2차 공부의 경우 답안지에 글을 만들어 써야하기에 이를 위한 엄청난 암기량이 뒷받침 해주어야합니다.

짧은 동차 기간 동안 암기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데는 **두문자 활용**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민소 약 300개, 특허상표 각각 약 150개 정도 두문자를 따서 판례를 암기하였고, 휴대폰 단어장 어플을 활용해 밥 먹으며, 학원 이동 중 지하철에서 틈틈이 보았고, 이 방법이 저와 잘 맞아 판례암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암기를 많이 한 덕에 판례를 짧으면 4,5줄 길면 반 페이지 이상까지 적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특허, 상표의 경우 주 논점과 관련된 판례를 길게 적을수록 득점에 유리하다는 것이 정론이니, 암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독속도 향상**을 위한 **교재 단권화**입니다, gs시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각 과목별 수험서 주 1회독이 될 정도로 회독속도를 올려야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교재에 학설, 판례, 검토 부분을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칠하고 목차부분을 부각해, 한눈에 봐도 책의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게 하였고, 책에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나 답안지에 적을 실익이 없을 것 같은 내용은 과감히 화이트로 칠하고 제가 수정하였습니다. 물론 판례의 두문자를 많이 따 놓아서 교재 회독시 두문자만 보고 넘어 갈 수 있어 이 점 또한 회독속도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수강 과정

1차의 경우 기본강의만 활용하였고, 2차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현장gs강의만 활용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 적으로 중요한 만큼 기본강의 같은 것은 인터넷 강의의 장점인 배속을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수강하여 시간을 아끼는 것이 수험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 강좌는 **이창한 강사**님의 민사소송법 기본, 사례, 기초gs, 실전gs 강의였습니다.

저의 강사선정기준은 **‘교재가 얼마나 좋은지’**였고, 실제로 민사소송법에서 이창한 강사님의 책이 가장 좋다고 정평이 나있고 직접 느끼기로도 빠진 내용이 없다고 느낄 만큼 만족스럽게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gs시즈에는 통합민사소송법이 아닌 암기노트에 단권화 작업을 한 후 이 책만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문제가 특허상표에 비해 정형화되어있는 만큼, **이창한 강사님의 사례집, gs정도만 열심히 보셔도 대부분 출제 범위까지 커버되어 충분**할거라 생각합니다.

## 4. 생활패턴 및 시간관리

동차수험생으로 공부시간이 부족하다 느낀만큼 별도의 쉬는 날은 정하지 않았고, 몸이 너무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날엔 반나절 정도 쉬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주에 반나절씩 쉬는 것 같습니다. 따로 운동을 하지는 않았고, 대신 독서실을 오가는 거리를 열심히 걸어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 영양제를 챙겨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으나, 수험생시절에는 각종비타민, 아르기닌, 홍삼등을 열심히 챙겨먹었습니다.

공부시간을 재거나 채우려고 강박을 가지진 않았고, 공부할당량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며 그 할당량만 채우려했습니다. 공부계획은 세세하게 짜기보다는 굵직굵직하게 책상 위 달력에 적어놓았습니다. 1차의 경우 오전 자연과학, 오후 민법, 저녁 산재를 공부하였고 2차의 경우 오전 오후 민소, 저녁 특허상표를 공부하여 모든 과목을 꾸준히 공부하려 노력했습니다. 2차의 경우 매일 반드시 시간을 재면서 1~2시간 이상 쓰기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아침 10시에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하루 평균 10~12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습니다.

## 5. 시험 긴장해소 방법 및 응시 후기

2차 시험의 경우 2시간동안 정신없이 약 18~20pg를 적어야하기에 시험보기 전 에 자신 있는 논점을 한 두pg 적으면서 손도 풀고 긴장도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시험 직전 책의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편이어서, 미리 준비해간 연습지를 한두pg 적으면서 손을 풀었고 시험 직전 긴장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인드 셋팅**입니다. **2차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히 논점누락 없이 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미리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번 시험에서 실제 몇 개 실수 및 논점누락을 했었고, 상표법에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에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법조문이나 일반론, 판례로 양을 채우려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한 것은 36분, 24분, 36분, 24분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한 두 문제 당황스러운 문제를 접하시게 될 텐데, 남들도 모른다 생각하고 뒷문제를 더 잘 푼다는 생각으로 멘탈 관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6. 나가며

저의 경우 **동차합격을 노렸기에 1차 기간 동안 미리 2차과목인 민사소송법, 회로이론의 기본강의정도만 수강**하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차를 노리신다면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공학과목일 경우)의 기본강의정도 만 미리 들어놓으셔도 같은 동차생 들에 비해 많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시험에서 **제가 느끼기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1. 답맞추기 2.주논점 잘쓰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권의 점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몇몇 부논점을 쓰지 못했고 답안지는 17.5pg정도로 많이 적은편이 아님에도 민사소송법이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나왔는데, 아마 묻는 바에 집중하여 답을 정확히 맞추었고, 주논점에 대해 학설, 판례, 검토 문구를 정확히 써준 덕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시험이 수험생 수준도 높고 과목자체도 정말 어려운 시험인 만큼 어려움이 많을텐데, 어려운 만큼 그 기쁨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수험생 분들도 조금만 참고하시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